

깨어나는 중국을 보았다



서산문화원장
이 준 호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했다. 지난달 고구려 유적 탐방차 중국 대련, 단둥, 집안 쪽으로 순회하는 도중에 집안현의 산간지방에서 갑자기 폭설을 만나 빙판에 의해 차량의 방향이 바뀌는 돌발사태가 발생해서 하마터면 대형사고를 당할 뻔했다.

어찌할바를 몰라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환인현의 교통국장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추위와 공포속에서 떨고 있을 때 이국땅에서 그렇게 친절한 공무원을 만난 것이 천운이라 생각된다. 자기가 가던 길의 반대 방향으로 수십km씩 안내해주고 다시 뒤돌아 서는 그들의 친절에 다시 한번 숙연해짐을 느낀다. 과연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바쁜 일정을 뿌리치고 그토록 고생스러운 도움의 배려로서 이방인들을 인도했을까?

그러한 개인의 성향이 국가 성장동력의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들은 분명 변하고 있었다. 정신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성숙을 지향하는 도전의식을 보았고 자아를 희생하는 배려의식을 보았다. 그것이 창의력이 창출되는 경쟁력 있는 국가로 변모함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헌신짝처럼 버려졌던 자신들의 문화를 다시 일깨워 끌어 담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문화를 도외시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는 없다. 이들이 잠자는 역사와 문화를 다시 일깨우는 모습에서 가끔 온몸에 전율이 느껴짐은 웬일일까...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자긍심과 국가관에 숙연해진다.

광개토대왕 유적지와 장수왕릉 등의 사적지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고구려의 역사는 당연히 자기들의 역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무서웠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는 모두 자기들의 것으로 덧칠해 나가고 있으며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동북공정 속의 국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우리로서는 심히 유감스러웠다.

우리는 역사와 문화의 늪에 갇힌 채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다. 가까이에서 두 눈 부릅뜨고 달려오는 중국인들을 똑바로 바라보자.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국인들과의 우호를 증진하며 다문화 사회를 열어가자.

서산 문수사 아미타불 복장직물의 민속학적 고찰

장 경 희

(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차 례

- I. 머리말
- II. 현존하는 고려말 염직 유물
- III. 고려말기의 염직제도와 제작 장인
- IV. 문수사 불복장직물의 문양 비교
- V. 맺음말

지방의 염직관청은 고려 전기의 제도가 계속 존재하였다. 충선왕 때에 경주에 있던 비단을 공물로 받아 쌓아두었던 갑방의 폐해에 대한 언급이 있다.¹³⁾ 이것으로 미루어 말기에도 각 지방에 염직장인이 있어서 공물용의 염직물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이 짠 능락의 품질이 거칠면 해당 고을의 수령까지 파직시키고 있었다.¹⁴⁾ 그러나 염직의 품질관리에 힘써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으리라 본다. 이렇게 정교한 능라는 원의 고려 지배가 심해지면서 많은 공물을 바치게 된다.¹⁵⁾

말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염직관청에 소속된 장인들의 직조기술이 뛰어났으며, 사원에 속한

13) 『고려사절요』 권23, 충선왕 3년 12월조.

14) 『고려사』 권31, 충렬왕 20년 하4월 갑오조 ; 같은왕 22년 11월 갑진조.

15) 『고려사』 권89, 열전, 후비2조.

직조 노비들의 직조기술도 매우 정교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충렬왕 때에는 여승이 원성공주에게 백저포를 헌납하였는데, 그 직물이 섬세하고 꽃무늬까지 섞여 있는 화문저포였다.¹⁶⁾ 이러한 화문저포는 한강변에 있는 암자의 여승의 우수한 직조기술에서 나온 것이고, 그 여승은 극세면포의 직조로 생업을 삼았다고 한다. 이로써 고려 말기의 사원 내에는 우수한 직조 기술의 전문가가 있어서 직조업이 사원경제에도 보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도 육진 각군의 승처들이 짠 직물에는 발이내포라고 부르는 지극히 가늘고 섬세한 직물이 있었다.¹⁷⁾ 그 직물이 얼마나 얇은지 포 1필이 스님들의 밥그릇인 바릿대 안에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니 그 직조기술이 어느 정도로 우수하였는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수준 높은 화문저포의 생산은 충렬왕 때에 이미 명성을 얻고 있으므로 늦어도 13세기 중엽에는 그러한 문저의 직조기술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원의 황제 세조가 고려의 기술은 중국인의 기술보다 훨씬 낫다고 하였다.¹⁸⁾ 원의 황제까지도 높이 칭송하였고 또한 원의 유명한 노래인 <어초기>에도 나올 만큼 고려의 모시포는 몽고인의 선망의 대상이었다.¹⁹⁾

그리하여 충렬왕 10년(1284)에 직문저포를 원나라에 공물로 보냈고,²⁰⁾ 이후 고려에서는 문저포를 중국에 계속 보냈으며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보았다.

〈14세기 문저포에 관한 기록〉

왕 대	명 칭	내 용	문 헌
충렬왕	화문저포	암자의 여승이 제직	『고려사』권89, 열전, 후비2조, 충렬왕
	직문저포	원나라에 보냄	『고려사절요』권20, 충렬왕 10년 10월
충숙왕	직문저포	원나라 황제가 요구	『고려사』권34, 충숙왕 9년 7월
		원나라 황제가 요구	『고려사절요』권24, 충숙왕 9년 7월
		원나라에 보냄	『고려사절요』권24, 충숙왕 9년 8월
		원나라에 보냄	『고려사』권35, 충숙왕 9년 9월
		원나라에 보냄	『고려사절요』권24, 충숙왕 9년 10월
		원나라에 보냄	『고려사』권35, 충숙왕 9년 10월
	문저포	원나라에 보냄	『고려사』권35, 충숙왕 16년 5월
충목왕	직문저포	원나라 황제가 요구	『고려사절요』권25, 충목왕 원년 4월
	문저포	원나라 황제가 요구	『고려사』권37, 충목왕 원년 5월
	직문저포	원나라 황제가 요구	『고려사절요』권25, 충목왕 2년 3월
공민왕	문저포	원나라 황제가 요구	『고려사』권38, 공민왕 3년 5월
		문저포의 공물면제요청	『고려사절요』권26, 공민왕 3년 5월
		원나라에 보냄	『고려사』권38, 공민왕 4년 5월
		원나라 공납 면제됨	『고려사』권38, 공민왕 4년 7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3세기 말 충렬왕 때부터 시작되어 이후 충숙왕과 충목왕 때에도 계속 문지포를 원나라와 황제에게 공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공민왕 3년(1354)에 문지포를 공물에서 제외시켜 주기까지²¹⁾ 70년간 고려에서 원나라에 공납했던 대표적인 염직물이었다.²²⁾

그런데 이후에도 무늬를 넣은 직물은 계속 생산되었는지 공민왕 11년(1362)에도 원나라 사신에게 직포를 선물로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원나라에 공물로 보내는 것을 면제 받은 이후로도 직문지포를 짜는 기술은 그대로 간직하여 원나라 사신들조차 서로 갖고 싶어하는 수준 높은 직물을 짠음을 알 수 있다.²³⁾

IV. 문수사 불복장직물의 문양 비교

찬란했던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현존하는 고려 말기의 옷감들은 불상을 조성할 때 넣은 불복장 직물이 대부분이다. 1346년 문수사 불복장직물을 비롯한 고려말기 옷감 중에는 금빛이 찬란한 직금직물이 수십여 점에 이른다. 청색, 녹색, 주황색, 분홍색, 흰색의 비단 바탕에 화려한 금사와 은사로 무늬를 짰다. 무늬의 소재는 다양하여 용이나 봉황, 새나 나비, 토끼 등의 동물 무늬나 작은 꽃무늬의 단독무늬를 규칙적으로 반복 배열하는 것이었다²⁴⁾. 또한 무늬가 있는 직물은 라와 능이 대부분이었다. 라는 얇고 반투명한 견직물로 익조직으로 제직되었으며, 능은 부드럽고 광택 있는 직물로 제작되었다. 라는 주황색, 자주색, 황색 등 다양한 색상에 밀도가 치밀하거나 거미줄처럼 성글거나 바탕에 무늬가 은은하거나 화려한 금박을 찍은 것 다양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14세기의 특징을 1346년 문수사 직물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자.²⁵⁾

1346년 문수사 복장직물 중에는 주홍사지 화문직금과 하늘색 능지화문직금이 있다. 주홍사지

16)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하.

17) 『고려사』 열전 권2. 충렬왕조.

18) 『원사』 조양필전 ; 김상기, 『고려시대사』, 서울대, 1985, p.519.

19) 민영규, 「장곡사 고려철불 복장유물」, 『인문과학』제14,15집, 연세대, 1966.6., p.241.

20) 『고려사』 권20, 충렬왕 10년 10월조.

21) 『고려사절요』 권26, 공민왕 3년 5월조.

22) 『고려사』 권25, 충렬왕 9년 9월조 ; 『고려사절요』 권24, 충렬왕 10년 10월조 ; 같은책, 권25, 충목왕 1년 5월조 ; 같은책, 충목왕 2년 4월조.

23) 『고려사』 권40, 공민왕 3년조.

24) 『우리나라 전통무늬, 직물』,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pp.22-23.

25) 장경희, 「고려말, 조선전기의 염직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8 ; 장경희, 「14세기의 고려 염직연구」, 『미술사학연구』, 190.191, 한국미술사학회, 1991.9, pp.31-68.

화문직금은 날실과 씨실이 모두 모시실로 날실은 외겹이고 씨실은 4겹의 혼사이다. 날실의 인치당 밀도는 84올이고 직물의 조직은 사직으로 꼬임이 있다. 염색은 날실과 씨실은 주홍색으로 선염을 하였고, 식서부분의 날실은 생사를 사용하여 제직한 것이 확인되며, 바탕직물은 실을 염색하여 직물을 짠 선염직물임을 알 수 있다. 문양은 1.5×1.5cm의 도립된 꽃무늬가 단위문양이며, 반복되는 단위는 2.3×3.0cm이다. 문양을 짠 실은 평금사로서 종이 위에 금박을 얇게 펴서 제직하기에 알맞은 실의 상태로 잘라서 사용하였다. 평금사로 짠 곳은 각 단위문양 사이에 서만 왔다갔다하여 중간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바탕부분은 사직이고 문양은 금으로 짠다는 것은 문헌에 보이는 화문직금과 부합된다. 이 직물에서 주목되는 또다른 점은 바탕섬유가 모시라는 것이다. 이러한 직물을 짜던 당시 1322년부터 1352년 사이에 고려에서 원으로 보낸 직물에 화문저포가 있다. 이러한 화문저포는 절에서도 짤 수 있었고, 고려가 염색이 뛰어났던 직물이 홍색이었다. 이러한 여러 근거로 주홍색화문직금은 고려말기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문저포였다고 여겨진다.

단위문양은 대칭에 가까운 2송이의 꽃과 줄기의 좌우로 잎사귀가 양쪽으로 벌어져 있으며 꽃송이의 위로도 2개의 잎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독립된 문양이 양옆으로 일렬로 늘어져 있으며 위아래에 반복되어 나타날 때에는 단위문양의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벽돌을 쌓듯이 반복된다. 이처럼 화문의 형태나 문양의 배치가 유사한 것으로 원나라의 출토유물인 천마문직금이 있다. 중국의 직금은 원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그 이유는 서역의 직금기술공 300여명을 현재의 산서성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의 천마문은 두툼한 운두에 기린을 함께 결합시켜서 벽돌을 쌓듯이 배열한 것으로서 고려의 화문과 유사한 점이 많다. 또 시대가 조금 내려가는 명대 초기의 직금으로 유명한 대계두직금과도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연하늘색 능지화문직금은 바탕직물은 날실이 씨실보다 조금 짙은 하늘색으로 선염되었고, 조직은 사선형의 꼴이 나타나는 능직이다. 문양은 평금사로 화문을 짰는데, 단위 문양 부분에서만 금실이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라 직물 전체에 금실이 들어가고 문양이 나타나는 곳만 금실이 위로 올라가게 짰다.

단위문양은 가운데의 씨방을 중심으로 7개의 꽃이 있는 매우 간단한 형태이다. 이 단위문양이 벽돌을 쌓듯이 배치되는데, 위의 것과 다른 점은 하나의 단위 문양이 상하가 서로 바뀌면서 엇갈리듯 반복되어 2개의 단위문양이 사방으로 연속되는 점이다. 이러한 문양은 나전국화문경합의 국화문과 비교될 뿐이다. 다만 염직의 7잎의 화문은 염직의 꽃잎끝이 뾰족한데 비하여 나전의 국화는 끝이 둥글다는 점이 다르다.

제석

■ 제석의 유래

1년의 마지막날인 설달 그믐날 밤을 제석(除夕) 혹은 제야(除夜)라고 하는데, 이는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밤이라는 뜻이다.

■ 연종제와 묵은해 문안

연종제란 궁중에서 한 해가 끝남을 기념하여 지내는 의식으로, 조선조 말기까지 궁중에서 이 연종제 행사를 행하여 왔다. 이때 악귀를 쫓는다고 하여 여러가지 가면을 쓰고 제금(銅)과 북을 울리면서 궁안으로 두루두루 돌아다니는데, 이를 나례(儼禮)라고 한다. 이 것은 1년 동안의 묵은 잡귀를 쫓아내고 새해를 깨끗하게 맞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였던 것이다. 또 대궐 안에서는 제석 전날에 대포를 쏘았는데, 이를 연종포(年終砲)라고 하였다. 지방 관아에서는 소총을 쏘고 징도 올렸다. 이러한 풍속은 고려 정종(靖宗)때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조선조 말기까지 궁중에서 행하여졌다. 이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高麗史)》(卷六十四)에 계동대나의 (季冬大儼儀)조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실록 世宗實錄) 동계대나의 (冬季大儼儀)조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조선 성종(成宗)때의 학자 성현(成俔)의 《용재총화(齋叢話)》(卷一)에 의하면 구나(驅儼)의 일은 관상감이 주관하는데, 설달 그믐 전날 밤에 창덕궁·창경궁의 대궐 마당에 들어가서 하는 행사로, 그 제도는 악공(樂工) 1명이 창사(唱師)가 되어 붉은 옷에 가면을 쓰고, 방상씨 4명이 황금빛 네 눈으로



곰의 껍질을 쓰고 창을 잡아 서로 치고 지군(指軍) 5명은 붉은 옷, 가면과 화립(畵笠)을 쓰고, 판관(判官) 5명이 푸른 옷·가면과 화립을 쓰며, 조왕신(王神) 4명은 푸른 도포·복두(頭)·목홀(木笏)로 가면을 쓰고, 소매(小梅) 수명은 여삼(女衫)을 입고 가면을 쓰되, 옷저고리 아랫치마를 모두 홍록(紅綠)으로 하고, 긴 장대기(旗)를 손에 잡고, 12신은 각각 그 귀신의 가면을 쓰는데, 예를 들어 자신(子神)은 쥐의 형상 가면을 쓰고, 축신(丑神)은 소의 형상의 가면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며, 악공 10여명은 도열(桃 笏)을 가지고 이를 따르는데, 아이 수십 명을 뽑아서 붉은 옷 붉은 두건(頭巾)으로 가면을 씌워 진자(振子)로 만들고, 창사(唱師)가 불러 이르기를, "갑작

(甲作)은 흥을 먹고, 불주(佛胄)는 범을 먹고, 웅백(雄白)은 매(魅)를 먹고, 등간(騰簡)은 불상(不祥)을 먹고, 남제(攬諸)는 고백(姑伯)을 먹고, 기(奇)는 몽강양조(夢强梁祖)를 먹고, 명공(明共)은 목사기생(木死寄生)을 먹고 위함(委陷)은 촌(櫟)을 먹고, 착단(錯斷)은 거궁기등(拒窮奇騰)을 먹고, 근공(根共)은 고(蠱)를 먹을지니 오직 너희 12신은 급히 가서 머무르지 말라. 만약 더 머무르면 네 몸을 으르대고 너의 간절(幹節)을 부글부글 끓여 너의 고기를 풀쳐내고 너의 간장을 뽑아 내리니 그때 후회함이 없도록 하여라" 하는데, 진자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복죄(服罪)하면 여러 사람이 "징을 치라" 할 때 이를 쫓아낸다 하였다. 결국 대궐과 관아에서의 이와 같은 풍속은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관상감에서 행하였던, '대나(大難)'라는 의식의 유속(遺俗)이라 할 수 있다.

■ 대청소 · 세찬 만들기

제석 다음 날이 바로 설날이다. 그래서 제석에는 설날 차례를 지내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 이를 세찬(歲饌)이라 한다. 이 세찬은 살림살이의 정도에 따라 또는 차례를 지내는 집과 안 지내는 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어느 집에서나 만드는 흰떡은 옛날에 멍쌀 가루를 찌서 안반 위에 놓고 자루 달린 떡메로 무수히 쳐서 길게 떡가래를 만들었으나, 지금은 떡방앗간에서 땀다. 한편 옛날 제석에는 상사나 친척 또는 친지들에게 세찬으로 쓰는 생치(生雉) · 전복 · 어란(魚卵) · 육포(肉脯) · 꽃감 · 대추 등을 선물하여 문안하였고, 지금은 주로 고기 · 생선 · 과일 술 등을 보내서 인사한다. 이에 대한 기록은《고려사(高麗史)》(卷六十四)에 계동대나의 (季冬大饗儀)조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실록 世宗實錄) 동계대나의 (冬季大饗儀)조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주부들이 세찬을 만들 때 남자들은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한다. 외양간을 청소하고 거름도 퍼내며 설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하면 묵은해의 잡귀와 액은 모두 물러가고 신성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는다.

■ 묵은세배

선달 그믐날 저녁에 사당에 절하고 설날 세배를 하듯 어른들에게 절을 하는데 이를 '묵은세배'라 한다. 그런데 이 묵은세배는 가까운 사이에만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시집간 딸들이 친정 부모나 친척집에 가서 세배를 하는 것을 '망년과세(忘年過歲)'라고 한다. 전라도 진도 지방에서는 설을 앞두고 '뭇뻬기'라 하여 자손들이 시부모나 친정 부모에게 음식을 차려 가지고 '名日이바지'를 한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

지역의 역사를 지키는 대산중학교 전시관

최근 대산중학교에 있는 전시관 유물을 정리하면서 이곳에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를 거쳐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민속유물이 다량 소장된 것을 보고 놀랐었다. 특히 이곳에 소장된 유물은 지표수습이나 기증을 받은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가 명확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들 유물은 모두 대산지역의 것으로 대산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인 것이다.

이렇게 대산중학교 전시관에 많은 유물이 소장된 계기는 이 학교가 개교할 당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로 인해 다수의 유물이 발견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물의 훼손이나 매매를 통한 다른 지역으로의 반출이 있었었다. 당시 대산중학교 초대 교장이신 김기풍 교장선생님께서 이점을 인식하여 지역의 역사를 지키고자 문화재 수집운동을 전개하면서 큰 성과를 이루게 된다. 그 결과 선사시대부터 민속유물에 이르기까지 1,100여점을 수집하여 향토관에 보관된 것이 오늘날 대산중학교 전시관이 생기게 된 배경이다.

이후 대산중학교 출토유물은 1965년 학계에 「대산반도 선사문화의 성격」이라는 논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잊혀져가고 있던중 학교에 소장된 유물을 학생들에게 역사적·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학교측의 의지로 대산중학교 전시관은 환골탈태하게 되었다. 기존의 전시공간이 좁고 열악하여 소장된 유물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었지만, 기존의 전시공간을 넓히고 전시부스 및 전시설계를 다시 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소장된 유물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선사시대에서 주목되는 것은 석기류이다. 소장유물 중 제일 많은 마제석부(磨製石斧)를 비롯하여 석촉(石鏃), 반달돌칼 등 선사시대 유물은 대부분이 생활도구이다. 이중 갈판은 그 크기가 70cm로 대형이며, 이와 함께 사용되는 갈돌로 볼 때 대산지역은 선사시대 농경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동모(銅矛)도 있어 청동기의 제작과 사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역사시대로 들어오면 백제시대 이전의 원삼국시대의 토광묘 출토도 판단되는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와 같은 토기류가 있고, 이후 백제토기로의 전환을 볼 수 있는 토기가 있다. 백제시대 토기는 명지리 토광묘와 같은 성격의 토기류가 다수 확인되고 있고, 40cm정도의 대형의 철정(鐵釘)은 최근 발굴 조사된 예천동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그 형태가 유사하여 주목된다. 토기류 중 그 형태로는 유일



학예연구사
이 강 열



향토관 유물 보관 전체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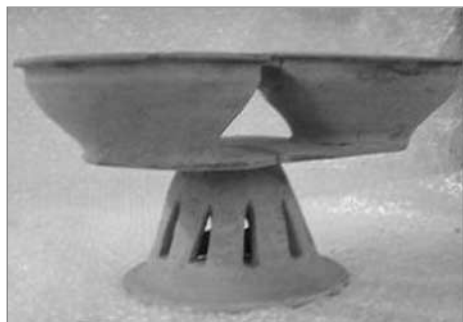
새로 개관한 전시관

무이한 고배(高杯)가 있다. 아직까지 백제시대 관련유적에서 동일한 형태가 없어 향후 좋은 자료로서 활용될 있을 것이다.

고려·조선시대 토기류와 자기류가 생활용구, 제사용구, 문방구등 종류별로 있다. 화곡리 마을의 청자요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기증자의 이름과 함께 출토위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유물 수집운동 당시 체계적인 유물정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대산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적의 하나가 바로 평신진인데, 이와 관련된 평신진 첨사와 관련된 교지(敎旨)라든지, 첨사와 관련된 서지류가 있다.

민속자료는 우리선조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이며, 지금은 사라져 없어져버린 최근의 자료까지 확보하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활했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지역의 생활상을 살펴 볼 수 있고 문화상을 복원하기 좋은 자료들이다.

아직 대산중학교 전시관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물의 정리와 전시 설명판과 같은 일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60년전 모습에 비하면 확실히 전시관은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좋은 전시관으로서의 지역에 사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시대 고배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우리지역이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려는 학교에 지역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그러다 보면 60년전 시작된 지역사랑의 정신이 계속이어져 앞으로는 좀더 좋은 전시관이 될 것이다.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

안견(安堅, 생몰년 미상)은 조선 초기의 대표적 화가이다. 본관은 지곡(池谷), 자는 가도(可度) 또는 득수(得守), 호는 현동자(玄洞子) 또는 주경(朱耕)이다. 세종연간(1419~1450)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문종과 단종을 거쳐 세조 때까지도 화원으로 활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종 때에 도화원(圖畵院)의 종6품 벼슬인 선화(善畵)에서 체아직(遞兒職)인 정4품 호군으로 승진되었는데, 이는 조선 초기의 화원으로서 한품(限品)인 종6품의 제한을 깨고 승진한 최초의 예가 된다.

신숙주(申叔舟)의 『보한재집(保閑齋集)』에 의하면 그는 본성이 충민하고 정박(精博)하였다고 하며 안평대군(安平大君)을 가까이 섬기면서 안평대군이 소장하고 있던 고화(古畵)들을 섭렵함으로써 자신의 화풍을 이룩하는 토대로 삼았다.

안견의 화풍은 지금 일본의 덴리대학(天理大學)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의 전칭작품(傳稱作品)인 사시팔경도(四時八景圖)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작품들을 보면 안견이 북송(北宋) 때의 대표적 화원이었던 곽희(郭熙)의 화풍을 토대로 하고 그밖에 여러가지 다른 화풍의 요소를 수용하여 자기나름의 독특한 양식을 이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비단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신숙주의 『보한재집』에 있는 화기(畵記)나 김안로(金安老)의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 등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산수화에 가장 특출하였지만 그밖에도 초상

(肖像)·화훼(花卉)·매죽(梅竹)·노안(蘆安)·누각(樓閣)·말·의장도(儀仗圖) 등 다양한 소재를 그렸다.

안견이 남긴 작품은 기록들에 상당수가 보이나 그 중에서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43년의 「이사마산수도(李司馬山水圖)」, 1445년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보한재집』에 기록되어 있는 「팔경도(八景圖)」 등 30점, 1446년과 1447년에 제작된 「팔준도(八駿圖)」, 1447년 이전에 그려진 「임강완월도(臨江翫月圖)」, 1447년에 제작된 「몽유도원도」, 1448년(세조 10)에 그려진 「대소가의장도(大小駕儀仗圖)」, 그리고 1464년에 중국사신을 위하여 그린 「묵죽도(墨竹圖)」 등이 대표적이다.

안견의 작품으로 전해오는 여러 그림들 중 가장 큰 작품은 적벽도이다. 적벽(赤壁)은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벽대전이 일어난 곳이자, 중국 북송대의 문장가였던 동파(東坡) 소식의 「적벽부」의 배경이 된 곳으로, 중국에서 이를 주제로 한 유사한 그림이 많이 전해온다.



(몽유도원도)

그러나 이 작품들은 모두 없어져서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오직 「몽유도원도」만이 유존하고 있으며, 이밖에 「사시팔경도」 등이 그의 작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그림들은 경물들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구도상의 특색을 비롯하여 공간개념과 필법 등에서 한국적인 특징을 짙게 띠고 있다.

1447년(세종 29) 음력 4월 20일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박팽년(朴彭年, 1417~1456) 등과 함께 노닐었던 도원(桃源)의 광경을 안견에게 그리게 하였는데 안견은 3일만에 그림을 완성하였다. 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평대군이 꾸민 꿈은 중국 동진(東晉)때 시인인 도잠(陶潛, 365~427)의 도화원기(桃花源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몽유도원도는 괘희파 화풍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화풍의 영향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적인 자신만의 화풍을 형성하여 후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몽유도원도에서 두드러지는 안견의 독창적인 면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인 두루말이 그림과는 반대로 그림의 왼쪽으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독특한 화면구성을 들 수 있는데, 화면의 좌측 아래쪽에서 우측 위로 대각선을 따라 현실세계와 꿈속의 세계를 효율적이고도 치밀하게 배치하였다. 또한 평원(平遠)과 고원(高遠)의 대조를 통해 산세(山勢)의 웅장함과 환상적인 느낌을 더욱 고조시키고, 넓게 펼쳐진 도원(桃源)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부분과는 달리 이곳만 조감도법(鳥瞰

圖法)을 사용하여 묘사하였다. 세부 표현도 매우 뛰어나 선묘는 세밀하여 일획의 실수도 없이 정갈하며, 박락되어 흔적만 살피볼 수 있는 복사꽃 꽃술의 금채(金彩)를 제외하고는 정교하게 채색된 부분 역시 아직도 화려함과 영롱함을 잃지 않고 있다. 화면 오른쪽 아래 구석에 ‘지곡가도(池谷可度)’라는 안건의 관지(款識)가 있고 이어서 주문방인(朱文方印) [가도(可度)]가 찍혀있다.

현재 몽유도원도는 상·하 2개의 두루말이로 표구되어 있는데, 상권의 첫머리에 ‘몽유도원도’라는 안평대군의 제첩(題簽)과 몽유도원도가 완성된 지 3년 후에 지은 안평대군의 칠언절구(七言絕句)가 주서(朱書)로 쓰여있으며 이 시문에 이어서 안건이 그린 몽유도원도가 펼쳐져 있다.

그림 뒤에 안평대군의 발문이 붙어있으며, 그 뒤를 이어 세종조의 대표적 인물 21명의 찬시(贊詩)가 실려있다. 상권에는 안평대군의 발문에 이어서 신숙주(申叔舟), 이개(李愷), 하연(河演), 송처관(宋處寬), 김담(金淡), 고득중(高得宗), 강석덕(姜碩德), 정인지(鄭麟趾), 박연(朴堧)의 찬시가 있으며, 하권에는 김종서(金宗瑞), 이적(李迹), 최항(崔恒), 박팽년, 윤자운(尹子雲), 이예(李茂), 이현로(李賢老), 서거정(徐居正), 성삼문(成三問), 김수온(金守溫), 만우(卍雨), 최수(崔脩)의 찬시가 실려있다.

이처럼 몽유도원도 권(卷)은 시(詩), 서(書), 화(畵) 삼절(三絶)의 수준 높은 경지를 구현함과 동시에 세종조의 빼어난 문화적 역량을 한눈에 살피볼 수 있어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용의 문학적 성격은 물론, 서예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그림은 안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 후의 한국 산수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에는 안건의 예술혼을 후세에 기리고 문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991년에 개관한 안건기념관이 있다. 1619년(광해군 11) 저술된 서산의 읍지 『호산록』에 안건 출신 지가 ‘서산군 지곡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산 문화의 뿌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서산시는 안건의 출신지인 지곡면에 몽유도원도를 실측 크기로 조각한 기념비를 건립했다. 안건기념관에는 안건의 작품인 몽유도원도를 실측 크기로 제작한 영인본을 전시하고 있으며, 적벽도, 사시팔경도, 소상팔경도 등 총 18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향토 작가의 미술품도 같이 전시되어 있다.

항렬자의 진행 원리

송 하 순 (대천문화원 사무국장)

1. 항렬자란 무엇인가

친족집단 내에서의 계보상의 종적(縱的)인 세대관계. 즉, 종적인 세대에서 형제관계에 있을 때에 같은 항렬이라는 의미에서 동향(同行)이라 하고, 위로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있을 때에 숙향(叔行), 조부와 같은 세대에 있을 때에 조향(祖行)이라 하며, 또 아래로 아들과 같은 세대에 있을 때에 질향(姪行), 손자와 같은 세대에 있을 때에 손향(孫行)이라고 한다.

전통적 친족제도에서는 항렬을 특히 강조하고, 각 세대마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이름 글자 가운데 한 자를 공통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세대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한 친족집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름자를 항렬자(行列字)라고 한다.

항렬자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글자는 오행을 나타내는 金·水·木·火·土, 십간(十干)을 나타내는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수(數)를 나타내는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 등을 글자의 일부에 포함한 자, 또는 오상(五常)을 나타내는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 같은 자이며, 때로는 위의 오행·십간·오상 등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글자도 사용된다.

그리고 한 친족집단이 항렬자를 통일하여 그 세대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용할 항렬자를 족보의 첫머리에 미리 밝혀두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족보 자체가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2.五行에 기초한 항렬자

우리가 날마다 쓰는 요일 이름은 음양오행(陰陽五行)으로 되어 있다. 日은 해이며 양(陽), 月은 달로 음(陰)이고, 火·水·木·金·土는 하늘에서는 화성·수성·목성·금성·토성의 다섯 개의 별(五星)이 되고, 땅에 있으면 불·물·나무·쇠·흙의 다섯 원기(元氣), 즉 오행(五行)이 된다.

쇠가 묻혀 있는 곳에 수맥(水脈)이 흐르고(金生水), 물이 있으면 나무가 자라고(水生木), 나무가 서로 부딪치면 불이 일어나고(木生火), 불탄 재는 흙이 되고(火生土), 흙 속에는 쇠가 묻혀 있고(土生金), 쇠는 다시 물을 있게 한다(金生水)는 것이 오행상생(五行相生)의 의미이다. 金→水→木→火→土로 진행되는 오행상생의 이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쓰이는 것은 아무래도 젊은 남녀들이 혼인할 때에 보는 궁합(宮合)과 거의 대부분의 문중(門中)에서 항렬자를 정할 때, 그리고 한방 의학에서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 여러 성씨들의 항렬자는 五行相生의 이치로 지어진 경우가 80% 가량 된다. 우리 나라가 좁다고 하여도 수천만의 인구에 수백 개의 姓이 있고 그 姓에 많게는 100 개가 넘기도 하는 여러 派가 있어 그 내용을 다 아우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라 光山金씨(光山金氏) 하나만 다루기로 한다.

光山金씨는 조선조에서 왕비 1명, 상신(相臣) 5명, 대제학(大提學) 7명, 청백리 4명, 공신 7명, 문과 급제자 265명을 배출하였다. 특히 대제학 7명이 모두 沙溪 金長生 한 사람의 후손 중에서 나와 沙溪의 家門이 다른 씨족에 비하여 월등함을 알 수 있다. 사계의 아들 대인 28世부터 58世까지의 行列字와 그 속성인 五行을 위아래로 대비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槃	益	萬	鎭	澤	相	箕	在	鉉	永	洙	容	中	善	淳	東	煥	奎	鎔	海	植	炯	坤	銖	洪	種	憲	重	欽	泰	杰
木	火	土	金	水	木	火	土	金	水	木	火	土	金	水	木	火	土	金	水	木	火	土	金	水	木	火	土	金	水	木

3. 五行과 무관한 항렬자

1. 天干의 順序에 의한 方式

○ 천안전씨(天安全氏) :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천간의 순서로 항렬자가 진행되는 경우 가운데 하나이다.

行列字	用	元	尙	來	茂	範	庠	宰	廷	沃	胄	旭	南	雨	晟	起	庚	翊	章	揆	思	完	柄	衡	裁	龍	度	奇	喜	洛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2. 地支의 順序에 의한 方式

우리 나라 여러 성씨들의 항렬자 가운데 순수하게 地支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경우는 교동인씨(喬桐印氏)의 경우가 唯一無二하지 않나 싶다.

行列字	敦敦	秉庸	演胄	卿迎	震晨	範熙	準昨	東來	重連	猷醇	成璣	夏馥
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3. 天干과 地支에 의한 方式

天干이나 地支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천간과 지지 둘을 다 사용하여 만든 경우의 항렬자이다. 全州李氏의 孝寧大君派와 金海許氏·陽川許氏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천간과 지지의 글자가 직접 들어가거나 그 모양이 비슷한 글자를 순서에 맞게 골라 쓰는 방식이다.

○ 전주이씨(全州李氏) 효령대군파(孝寧大君派)

行列字	遇	凡	會	宇	儀	起	康	宰	廷秀	揆	學	秉庸	演	卿	振	範	年	來	重	櫛	成	遠	萬	旭	炳	宗	盛	熙	廣	章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全州李氏의 100개도 더 되는 여러 派 가운데 天干과 地支를 연이어 써서 일사불란하게 항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오직 孝寧大君派 한 곳뿐이다.

4. 數字에 의한 方式

行列字가 五行이나 天干·地支 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숫자 一·二·三·四 식으로 가다가 十까지 다 나아가면 다시 一부터 새로 출발하는 아주 특별하고도 재미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쓰는 대표적인 집안으로 安東權氏와 潘南朴氏 등을 꼽을 수 있다.

○ 반남박씨(潘南朴氏) : 燕巖 朴趾源이 우선 떠오르는 대표적 인물이다.

行列字	雨夏	天仁	春承	憲寧	吾五	章宰	虎純	謙善	旭九	平斗
數字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5. 其他 特別한 경우의 行列字

○ 한산이씨(韓山李氏) 戶長公系

行列字	在	承	植	珪	求	馥	遠	濬洙	秭禾	培膺	淳灝	來穗	瑤珞	洪汶	困蘇	桂珞	洸汪	秦乘	瑩玼	滉澈	采穉	琿垂
數字	土	水	穀	土	水	穀	土	水	穀	土	水	穀	土	水	穀	土	水	穀	土	水	穀	土

우리 나라의 성씨별 항렬자 가운데 가장 독특한 예의 하나로 한산이씨를 꼽지 않을 수 없다. 五行도 天干이나 地支도 아닌, 그렇다고 무슨 숫자로 나갔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아주 독특한 방식의 항렬자가 韓山李氏와 仁川蔡氏의 경우이다.

한산이씨들이 왜 다른 門中과는 달리 水·穀·土의 세 가지 요소로만 항렬자를 짓게 되었는지는 누구한테 들어본 일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조상 중의 우뚝한 인물들인 稼亨 李穀·牧隱 李穡父子분의 이름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稼는 ‘씨 뿌릴 가’ 字이고, 穡은 ‘거둘 색’ 字이다. 『千字文』속에도 ‘治本於農 務茲稼穡(치본어농 무자가색)’이라는 句가 있다. 나라 다스리는 근본은 농사에 있으니 씨 뿌리고 거두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4. 변화 또는 병행하는 경우의 行列字

항렬자 가운데에는 五行相生에 의하거나 天干과 地支 혹은 數字의 순서로 진행되는 방식 이외에 그들 요소가 並行하거나 중간에 변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보게 된다. 오행으로 나가다가 중간에 천간이나 지지의 순서로 바뀐다든가, 반대로 천간이나 지지로 진행하다 오행이나 숫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천간에서 지지로 거기에 다시 숫자로 이어지는 예도 있다. 애초에 천간이나 지지가 혹은 오행과 천간이 한 代에 나란히 쓰이거나, 元亨利貞이나 仁義禮智며 孝悌忠信 등의 좋은 말이 오행과 병행하여 나가는 경우도 보게 된다.

○ 행주기씨(幸州奇氏)

行列字	東	變	世	錫	永	柱	炯	重	乾	炳	河	成	龍	康	章	廷	揆
屬性	木	火	土	金	水	木	火	土甲	乙	丙	丁	丙	己	庚	辛	壬	癸

五行으로 나가다 중간에 天干의 순서로 바뀌었다. 重은 앞에서 진행되어온 五行의 순서인 土에 맞으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天干의 첫 번째인 甲에 잘 어울린다.

○ 해주최씨(海州崔氏) 校理公派

行列字	致	鎮	海	稷	丙	圭	鍾	泰	智	仁	勇	信	義	一	春	夏	廷	商	壬	元	亨	起	庚	揆	震	○	堯	兌
屬性	土	金	水	木	火	土	金	水	水	木	火	土	金	水	木	火	土	金	水	木	火	土	金	水	木	火	土	金

五行으로 진행되다 중간에 智·仁·勇·信·義라는 이질적 요소가 삽입되었다가 일부터 다시 五行의 요소로 되돌아왔다.

- ① 天干의 丙은 南이고 火이다.
- ② 五數의 一은 六과 마찬가지로 五行에서는 水이다.
- ③ 五時의 春과 夏는 五行에서 木과 火이다.
- ④ 五聲의 商은 五行에서는 金에 해당한다.
- ⑤ 天干의 壬은 北이며 北은 五行에서 水에 해당한다.
- ⑥ 元·亨은 元亨利貞의 元과 亨으로 五時의 봄과 여름을 가리키며, 春과 夏는 五行의 木과 火에 해당한다.
- ⑦ 起는 글자 속에 土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己가 들어 있기도 하다. 天干의 己는 五方에서 中央을 가리키며 中央은 五行에서 土이다.
- ⑧ 天干의 하나인 庚은 서쪽을 가리키며 西는 五行에서 金에 해당한다.
- ⑨ 揆는 손수변(扌)과 天干의 하나인 兌가 합하여져 된 글자이다. 兌는 북쪽을 가리키며 北은 五行에서 水에 해당한다.
- ⑩ 八卦의 하나인 震은 동쪽을 가리키며 東은 五行에서 木에 해당한다.
- ⑪ 역시 八卦의 하나인 兌는 방향으로는 西이고, 五行의 金에 해당한다.

『맹자』 (양혜왕편)

왕도는 이익을 먼저 따지지 않는다.



『맹자』의 첫 구절은 <양혜왕>편의 ‘何必曰利(하필알리)’다. 춘추시대의 패자 진(晉)나라는 나라가 기울면서 한·위·조 세 나라로 분열했다. 『맹자』에 등장하는 양혜왕은 원래 위나라 혜왕이다. 혜왕은 야심도 있었고 능력도 적지 않은 군주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위나라는 동쪽의 제나라, 남쪽의 초나라, 서쪽의 진(秦)나라 등에 시달림을 당하면서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수도를 양(梁) 땅으로 옮겨야 했을 정도였다.

보잘 것 없던 서쪽 변방의 오랑캐 진(秦)나라가 성공한 것은 법가(法家)인 상앙을 등용하여 부국강병(富國強兵)에 힘썼기 때문이었다. 이런 시국이었으므로 양혜왕이 맹자

에게 어떤 이익될 말을 해줄 것인가 물었던 것은 군주로서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혜왕에게 맹자는 매몰차게 말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필이면 이익부터 따지는 말이라니(요)?”

혜왕의 이익(利)에 대한 맹자의 대안은 ‘인义(仁義)’다. 인의는 『논어』의 인이 맹자에 와서 얻게 된 인의 용법이다. 맹자는 공자의 인에 의를 붙여 인의를 하나의 세트로 설정했다. 이익(利)과 인의(仁義)는 어떤 점에서 보면 법가(法家)와 유가(儒家)의 대립점을 양단한 첨예한 분기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패도(霸道)와 왕도(王道)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맹자에 따르면, 패자는 반드시 대국을 소유하여야 하고 힘으로써 인의 행위를 빌리지만 왕도는 대국을 필요치 않을 뿐 아니라 힘 대신

덕(德)으로 인을 행한다. 유학 정치사상은 이렇듯 맹자에 의해 덕치(德治)를 명확히 했다. 맹자는 말한다. 성인에 해당하는 탕임금과 문왕은 각각 70리와 100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으로도 천하에 왕도를 구현했다. 덕은 상대를 마음으로부터 복종(心腹)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패도와 왕도의 논리는 제국주의와 제국의 차이로 대비해보면 현대 세계의 정치판이 축소되어 보인다. 민족주의의 외부적 발현인 제국주의는 한 마디로 팽창주의다. 그것은 끝없는 식민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식민지 개척 이후다. 제국주의는 새로운 식민지에 자신들의 법과 양식을 강요한다. 좋게 말하면 자신들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제국 본토와 식민지 사이의 위계는 엄연하고 부동의 것이었다. 제국주의는 차이를 무화시키고 고정된 가치로 등질화한다.

제국은 제국주의와 다르다. 기원전 로마의 변영에는 로마의 스타일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예컨대 로마는 새로 개척된 영토에 자신들의 종교나 법령 등을 강요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면 일종의 자치권이 형성된다. 고대 중국의 봉건제는 이런 점에서 제국의 논리와 통한다. 맹자의 왕도정치가 특히 그렇다. 세상은 모두 천자의 것이다. 천자는 제후들을 임명한다. 하지만 제후들의 영지에서 제후들은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다. 이때 실질적으로 제후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은 무력(武力)이 아니라 덕(德)에서 나온다는 것!

맹자의 유명한 ‘호연지기(浩然之氣)’는 왕도의 개인 버전이다. 지극히 크고 굳센 무엇! 강직함으로 길러서 해롭지 않다면 천지간에 가득차게 되는 것!! 호연지기는 의(義)가 모인 것이다. 의란 마땅함, 즉 자신에 대해 떳떳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호연한 기운이 의로운가 아닌가는 객관적인 어떤 잣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명하고 뚜렷한 의지에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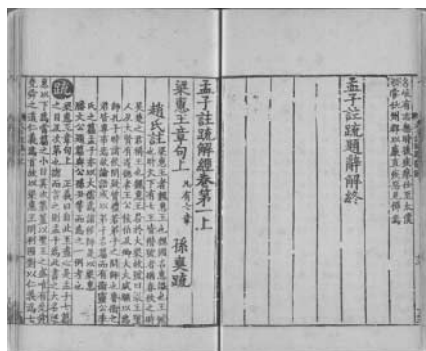
내 마음이라고 해서 이것을 사적(私的, private)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때 말하는 내 마음은 외부적인 어떤 것과도 더불어 작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를 뜻한다. 우리는 마음이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것! 요컨대 마음이란 나로 하여금 나 아닌 것과 만나게 해주는 근원적인 것이다. 언제나 마음은 다른 무엇과 더불어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마음이란 나이면서 내가 아닌 것이다. 의로움의 최후 심급은 마음, 즉 내 마음이다. 요컨대 ‘스스로 돌이켜 정직하지 못하면 상대가 아무리 비루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스스로 돌이켜 정직하다면 상대가 비록 천만 명이라도 기꺼이 대적할 수 있’는 것!

유학의 입장에서 맹자는 도의 수호자였다. 맹자가 난세(亂世)를 살면서도 원칙에 더욱 철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정치철학을 지식이나 방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맹자는 요순우탕 등 성인들의 태평성세가 대략 500년을 주기로 순환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도가 쇠미해졌다고 해서 당장 눈앞의 효과만을 쫓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지금이 아니라면

후세에는 분명 소용될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하늘이 백성을 낳고, 먼저 안 사람이 뒷사람을 알게
 해주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뒷사람을 깨닫게 한다.
 나는 백성 가운데 먼저 깨달은 사람”(〈만장〉)이다.

인이나 의, 혹은 덕 같은 가치들은 통계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객관화될 수 없다는 점
 에서 사실 사람들을 실천적인 차원에서 추동하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명명백백하고 분명한 법가 계열의
 시스템에 비한다면 예치(禮治)는 비효율적인 것일
 지도 모른다. 이것은 다른 제가백가들이 유가의

논리를 자칫 공허한 말장난이나 추상적인 구호로 여겼던 이유이기도 하다.(현대인에게 그저 그렇고
 그런 좋은 말씀뿐인 도덕 교과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맹자의 생각은 달랐다. 누구나를
 위한다는 생각이야말로 아무도 위하지 못한다는 것! 왕의 길이야말로 누구나의 길이라는 것!
 삶이란 타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전에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
 그런 점에서 정치는 내 삶의 연장일 뿐이다. 비유하자면 기성복에 내 몸을 끼워 맞추는 삶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딱 맞는 양장을 맞추는 문제라는 것!



(맹자 - 양혜왕편)



글쓴이 소개

문 성 환 (文聖煥)

-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만주국경지역 (大連, 丹東, 集安, 桓人) 역사 탐방기

서산문화원 이사 이 영 하



(대련시)

역사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만주 집안의 광개토대 왕비 앞에서 기원을 드리고 어루만져 보고 싶은 맘이 간절하였다.

만주- 지금은 중국의 땅,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선 조들의 고토(故土)이다. 올해는 단기 4343년이지만 우리 민족은 훨씬 이전부터 살아오며 활동한 무대이다. 하지만 한족은 불과 100년밖에 안 된다. 중간에 명나라가 약 200 년간 지배한 적이 있지만 원나라에 쫓겨났다.

대략 조선족은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3,000년, 부여 400년, 고구려 705년 발해 227년, 정안국(후 발해국)이 100년 정도 만주를 영위했으니 단군 기원과 거의 맞아 들어간다. 근래 발해 연안 동이족(조선족)의 유물을 발굴해 측정해 보니 여기서 2,000~3,000년 더 올려 잡을 수 있다. 역사의 신(神)이 살아 있으니 사필귀정(事必歸正)과 천우신조(天佑神助)를 믿으며 느긋이 기다리면 된다.

대련시는 요동반도 남쪽 끝 발해만을 끼고 있으므로 동북 3성(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의 관문이 기도 하다. 이 도시는 러시아가 청나라와 밀약할 때 만주를 선점하고자 대련과 여순간의 철도 부설권을 얻으며 자기네 계획대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러.일전쟁(1904~1905)에서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장춘과 여순간의 철도관리권이 전승국으로 넘어갔다.

압록강 하구 성해(星海)공원에는 긴 가래떡 모양의 시멘트 구조물(80m)위에 남자, 여자, 어린이 등 100쌍의 발자국을 찍어 바다 쪽으로 걸어 나간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끝에 롤러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였다.

날씨가 음산하더니 여순 시내에 진입하자 차창에 부딪치는 빗방울이 연달아 흘러내린다. 의군참모



(대련 성해광장)



(여순감옥)



(안중근 의사가 사형 당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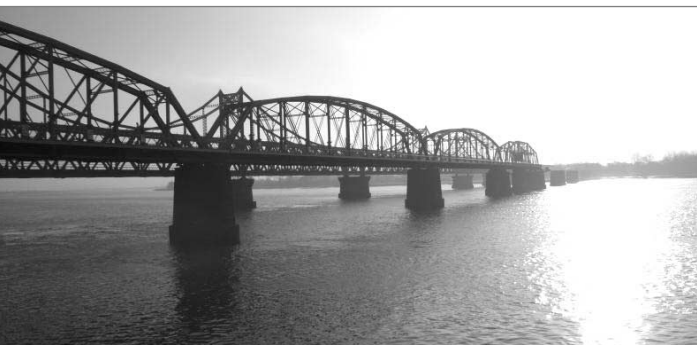
(안중근 기념관)

중장 안중근(安重根)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조선총독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저격 살해하고 이듬해 3월 26일 이곳 감옥에서 순국하면서 “내 뼈를 하얼빈 공원곁에 매장 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남겼던 유언이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우중충한 건물 내에 대련거주 한국인이 열었다는 기념관에는 안의사가 쓴 힘진 글씨들을 벽 가득 게시했고 그 옆 전시실에는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와 지사 이회영(李會榮)의 흉상과 확대사진, 이모저모 활동 모습들이 어제의 숨가쁜 역사를 알려준다. 세면할 때도 머리를 숙이지 않아 옷이 젖었던 깨끗한 자존심, 이지사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수천석 지기 가대를 정리하여 몽땅 독립운동 자금으로 바치고 이 황량한 대륙에 와서 풍찬노숙을 했던 우국지사 아니던가. 안의사의 시신이 실려나간 형무소 뒤에는 밋밋한 구룡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이다.

산이 보이지 않는 북방 황야를 달리지만 모두 착잡한 분위기다. 단둥까지는 300km, 4시간이 걸린다. 도중에 휴게소는 딱 1개소. 한국분들은 살만한 물건이 없고 화장실도 그저 그렇다고 한다.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멸망하고 승자인 당나라가 안동도호부를 설치한 이래 1960년대까지 안동으로 불러오다가 5년 뒤 단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동방의 해프는 도시라고 말치레를 했다. 시내인구 75만 가운데 조선족은 1만5천여 명이 뒤섞여 살고 있다고 한다.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한 압록강이 집안을 지나 단둥, 발해만까지 근 800km 흐르는 강건너 신의주가 뵈인다. 1950년 10월 어느날인가 북진한 국군 한 병사가 엎드려 수통에 강물을 담던 장면이 불현 듯 떠오른다. 단교(1911년 설치한 압록강 철교)에 올라보니 공주의 금강철교와 유사하다. 미국은 중공군이 개입할까봐 이 철교 북한쪽만 폭파했지만 이들은 이미 100만명의 군사를 보내 인해전술로 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하였다. 강변 둔치는 시멘트로 포장하여 산책객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한국인임을 알아챘는지 한노인이 수건을 낀 막대에



(끊어진 압록강 철교)

매어 물을 묻혀서 원조항미(援朝抗美)라 쓴다. 깡마른 조선족 얼굴이다. 근래 한국신문에 중국의 차기 최고 지도자 습근평(習近平)이 항미원조(抗美援朝)를 말했다고 여러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는 자기나라 국민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호텔(가일양광주점)에 비치한 단동풍광(丹東風光)이란 책자(21~22쪽) 기문을 보니 1990년 구내 영화산(英貨山)에 항미원조 기념관을 세웠고

1993년 7월 25일 조선정전협정 40주년 기념일 행사도 했다. 애국교육기지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설령 2012년 중국의 정권이 교체되어도 우리에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압록강에는 160개의 충적토 섬이 있고 제일 큰 섬이 위화도이다. 중국과 북한 간에 백두산의 반을 중국에 베어주는 대신 북한이 이들 섬 130개를 받았다. 3개는 중국에 딸린 섬이라 인정하고 중국은 이 위화도를 북한으로부터 50년 임차 받아 자유무역항으로 설치하고 카지노, 골프 등 유흥장으로 조성. 제2의 홍콩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평평한 섬 주변에는 몇 채의 가옥이 보일뿐 안쪽으로는 버드나무와 잡목이 정성드못하다. 1388년(고려 우왕) 고려 10만 대군이 요동을 정벌 하고자 출정. 주둔하였으나 때는 여름이라 이성계(李成桂)는 사대불가론(四大不可論)으로 회군을 건의한다. 첫째, 소국이 대국을 침이요. 둘째, 여름철 농번기를 택함이요. 셋째, 거국적 원정의 틈을 타서 왜구의 침입이 우려됨이요. 넷째, 여름 장마철이라 활이 풀리고 질병이 심할 것이라는 점 등 사유인데 최영(崔瑩)도 왕에게 맞는 말이니 서경에 머무시다 가을에 출사하도록 진언했다.

강변길을 따라 20분쯤 가니 박작성이다. 암벽으로 된 호산(虎山) 봉우리에서 이어 나온 고구려성인데도 중국에 서는 만리장성의 기점이라고 보수 공사가 한창이다. 이곳 다리에서 요녕성과 길림성의 경계이고 비류강이라 부른다. 강 지류 건너 농경지 뚝 위에 북한군 초소와 초병이 보인다. “1960년대에는 중국인들이 보다 잘사는 북한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굶주린 북한 인민들이 이곳으로 넘어온다. 참 안됐다.”는 가이드의 말이 깊숙히 들어온다.



(위화도)

(다음호에 계속)



창의력 쑥쑥! 이야기나라!

동화구연

동화구연은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면 할수록 재미가 더해지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즐거움을 준다.

동화구연은 동화내용 전달과 동시에 감성표현을 곁들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혼자서 읽었을 때의 이해도가 60%라면 구연자가 들려주었을 때 이해도는 90%가 된다. 구연을 통한 감성표현이 내용의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그럼 동화구연을 할때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은 구연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동화 속 동물, 식물들은 모두 의인화되어 있으므로 사람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설정하면 된다.

즉,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구연하는 까닭은 동화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 구연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코 자신의 목소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럼 동화구연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동화구연의 포인트를 살펴보면 크게 8가지로 나뉘지는데 다음과 같다.

✧ 구연 포인트

1) 감을 잡아라

- 동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한다.
- 등장인물의 역할 및 캐릭터를 잘 분석해야 한다.

2) 상황별 감성 표현

- 바탕글과 대화체에 희로애락을 표현한다.

3) 음색 조절

- 각 문장의 상황(슬픔, 기쁨, 놀람, 놀림, 우울, 짜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연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음색이 된다.



이 성 애
동화구연강사

4) 목소리 크기 조절

- 내용 중에서 화자와 청자사이의 원근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목소리 크기의 조절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5) 각 문장의 첫 음은 낮게 시작한다.

- 바탕글이든 대화체든 처음 시작하는 첫 글자는 ‘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안정된 느낌이 든다.

6) 문장과 문장 사이는 한 박자 쉰다.

- 청자가 앞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7) 강조하기

- 수사법에서 주로 반복법, 점층법, 연쇄법, 과정법, 영탄법, 대조법이 사용된 경우 그 낱말을 강조하여 악센트를 준다. 단, 낮은 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8) 어미처리

- 어미처리는 늘어지거나, 툭 떨어뜨리거나, 흐리지 않게 한다.

9) 마지막 문장은 여운을 살린다.

- 마지막 결말의 상황에 따라 이야기의 뒷맛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분명하게 또박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동화구연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동화를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음성언어로 전달하고 동화의 내용을 총체적 언어교육 또는 교과영역으로 접목하여 지도함으로써 어린이의 감성언어와 이성언어의 조화로운 표현을 향상시키고 있다.

“교사는 언어를 부리는 예술가다.”(듀이) 라고 한다.

교사는 언어를 통하여 학생들과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여기에서 언어란 사고를 촉진시키는 매개체를 뜻한다.

이렇게 볼 때 동화구연은 동화를 들려주어 사고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화구연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 선생님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동화구연 어떻게 할까? <성현주>



문화사랑방

임 미 영

“어~엄~마~! ♪ ㄹ”

“오늘 우리 아라 기분이 좋은가 보네.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주 사랑스러운 걸. 무슨 일이니?”

하고 뒤돌아보면 아라의 손엔 어김없이 발레 가방이 들려있다.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키즈 발레 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라는 먼저 준비를 마치고 서두를 만큼 아주 신이 나 있다. 즐거워하는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역시 즐겁고 행복한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아라가 문화원의 발레 수업을 받은 지도 어느새 2년이 됐다.

발레수업은 늦결혼인 데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 서산생활이라 딸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는 일, 그리고 육아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일이 어렵던 차에 아이의 활동력을 뒷받침해주고 기분 전환도 시켜줄 겸 해서 시작된 일이었다.

처음 발레복을 입고 빙그르르 돌며 즐거워하던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절로 웃음이 난다. 반짝이는 눈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동작 하나 하나를 따라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귀엽기는 하지만 품이 나지 않더니 이제는 제법 유연한 동작을 흉내낼 수 있게 되었고, 혹시 친구가 놀러오면 스스로 발레 선생님이 되어 동작을 선보이고 가르치기에 이르렀으니 이젠 나를 수준급이라고 하면 팔불출 엄마의 자랑일까?

이렇게 시작된 문화원과의 인연은 엄마인 나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배움과 나눔의 장소가 되어주었다.

아이를 보내느라 접하게 된 문화원에는 내가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문화 강좌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었다. 하나씩 욕심을 내 수강을 하다보니 지난 2년반 동안 가베 지도사, POP, 폼아트, 북아트지도사, 풍선장식, 파티페인팅 등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그 결과로 내 품에 안긴 자격증들은 대학 졸업 이후 배움의 즐거움을 잊고 살았던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했다.

스스로 ‘잘 했어. 대견해’ 라고 칭찬할 수 있을 만큼의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배운 것들을 아이와 함께 실습까지 하니 아이도 즐거워하고 말 그대로 1석2조의 효과였다. 그 덕에 딸아이는 우리엄마는 무엇이든 배우면 잘 하는 멋진 엄마라는 자량을 유치원 친구들에게 하고는 한다.

이렇듯이 배움의 노력들은 나 자신의 만족감도 있지만, 아이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엄마

로서 생활의 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숨은 매력이기도 하다. 생활에서의 실천만큼 더 좋은 교육은 없다지 않던가.

문화원에서의 즐거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문화원에서 만난 학습 동료들, 그리고 아이 친구의 엄마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로 인해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행운이 덤으로 따라 왔다는 것이다.

작년가을 감기증세로 찾은 병원에서 신종플루와 더불어 아라의 한쪽 눈에 시력이 거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아라를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 내게 문화원 엄마들 모두가 내 아이의 일처럼 아파해 주고 격려 해 주었다. 그 덕분에 나도 힘을 낼 수 있었고 아라도 가림 치료와 안경치료를 열심히 해 정상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이제 사전에서나 찾아봐야 할 만큼 도시화, 개인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요즘, 아픔을 같이 나누어 주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나 함께 배우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것, 이웃사촌이 생겼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자 행운이다.

만나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육아와 살림,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이 즐거움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그 옛날 마을마다 있었을 ‘사랑방의 나눔’을 나는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다.

후유~.

문화원에서의 2년을 담담히 되돌아보려했을 뿐인데 자랑할 것이 그리고 감사한 것이 우후죽순 떠올라 숨이 잘 지경이다.

이쯤 되니 위촉받은 적은 없지만 명예홍보대사 정도는 된 것 같은 이 기분이다. 하하하!

이 기회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배움과 문화의 공간으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해주시는 서산문화원 원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질 높은 강의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러 강사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배움의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는 나의 친구이자 동료인

모든 문화원생들에게...

“모두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1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세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열심히 배우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라야~ ♪♪”

“어? 우리 엄마, 오늘 기분이 좋으시네. 무슨 일 있어요? 아! 우리 엄마, 문화원에 수업 받으러 가시는 날이구나.”

우리 모녀의 문화원 사랑은 계속 될 것이다. 쭈욱~~~!



제18회 서산문화대상 및 제10회 청소년문화상 시상

2010년 11월 24일(수) 오후 1시 30분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은 서산문화대상 및 청소년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서산문화대상은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하여 이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후생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시상하는 상으로서 1993년부터 19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올해 18회를 맞이하였다. 이에 11월 16일 서산문화대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악 분야의 유두근(서산시 동문동)씨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자 유두근씨는 현재 주요무형문화재 제30호 이수자 지정,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4호 가곡 이수자로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악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해 왔다.

또한 청소년문화상은 서산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 예행, 선행을 실천한 3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문화상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하였다. 올해 10회째인 청소년 문화상은 초등부 박민서(서산초 6학년), 중등부 이현규(서령중 3학년), 고등부 한예령(서산여고 2학년)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서산여자고등학교 한예령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준호 서산문화원장은 자칫 소홀한 우리의 전통 문화이며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문화예술의 발전에 공헌한 유두근씨와 다수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효행, 예행, 선행을 베풀어 수상을 하게 된 3명의 학생이 있기에 앞으로 우리지역 문화발전과 미래는 더욱더 진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축하했다.





문화가족 한마당 개최

2010년 11월 24일 오후 2시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 문화감상실에서 「문화가족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서산문화원 회원과 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회원들의 다양한 문화공연과 장기를 선보이는 자리로 회원간 단합과 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서산문화대상과 청소년문화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문화가족 한마당이 펼쳐져 지역문화학교 수강생, 지역문화단체, 전문공연단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아직 아마추어이지만 서산문화원 지역문화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사회봉사도 하고 있는 전통무용, 민요, 장구, 플룻 수강생들이 첫 무대를 꾸몄으며 이어 지역에서 활발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땅울림의 난타소리가 흥을 더욱 돋구었다. 그리고 이웃 문화원인 태안문화원에서 실버마술단이 방문하여 신기한 마술쇼로 축하무대를 마련하였다.

이어 사회자의 진행으로 회원 레크레이션을 통해 회원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 서로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준높은 공연과 흥겨운 회원 단합무대를 통해 서로 더욱 친밀해지고 문화 수준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퓨전 국악 가야금 3중주를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다음기회를 기약하였다. 서산문화원장은 회원과 지역민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의 메카로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였다.



서산문화대상 수상 유 두 근 선생

서산문화원 이사 유 병 인

“세계가 인정한 우리소리,
맥을 어어가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민족의 전통이 살아있는 정가를 보급하고 후세들에게 우리소리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저의 소임인 것 같습니다”

2010년 서산문화대상을 수상한 유두근 선생을 서산시 읍내동 서산시시우회관에서 만났다.

일송(日松) 유두근(俞斗根) 선생은 대전 무형문화재 제14호 가곡 이수자이며 한자이 정가연구원 정가연구회 사범, 서산시우회 사범, 전국 정가 경창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소리인 정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서산 시우회관에 매일 출근하여 몇 십 년째 무료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우리소리인 시조, 가곡, 가사를 일컬어 정가라 부르는데 그중에서 가곡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 되었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전통어린 소리를 인정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시켰는데 정작 우리들은 우리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도외시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유 선생은 어린 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가를 배우고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봉사할 준비를 하고 우리소리 보급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한다.

평소 우리소리에 미쳐 외길 인생을 살아온 그의 공적이 이번 문화대상을 수상하는게기가 된 것 같다.

유 선생은 유년기 고향집에서 자연스럽게 정가를 접하게 되었다. 그는 운산면 거성리가 고향이다. 당시 유 선생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당대의 명창들이 유 선생의 집에서 묵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 귀동냥으로 정가를 접하였다고 한다. 8.15해방 후에 향교가 활성화 되었고 지금은 당진군에 속했지만 당시에는 정미면과 대호지면이 해미향교의 관할에 있었다고 한다. 걸어서 해미향교에 다니던 사람들이 오가며 묵어가는 중간거점이 유 선생의 집이었다고 한다. 손님들은 밤새 시조를 읊조리고 유 선생은 잔심부름을 하면서 시조를 들었는데 어린마음에도 가슴에 와 닿는 것이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유 선생이 젊었을 때는 해방 후 살기 어려운 시기였고 산업화와 더불어 우리소리가 대접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처지가 되었다. 마음속에만 묻어 두었던 소리를 다시 접하게 된 것은 그가 60세가 다되어 부활한 전주대사습놀이였다. 1995년에 전주대사습놀이에 출전하여 장원을 차지한 유 선생은 그 뒤부터 오로지 한우물을 파며 미친 듯이 정가에 빠져 들었다. 국립국악원 이양교 선생과 경북대학교 김경배 교수 등과 같이 공부하며 매달린 결과 오늘날 가곡이수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아마 98년도일 겁니다. 중국 연변에 공연을 하러갔는데 연변방송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변에서 잊혀져가는 우리소리를 들으러 동포들이 모여들었어요. 온힘을 다해 가곡을 불렀는데 우리장단에 맞춰 흥겨워하던 동포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소리는 우리 민족의 가슴속으로 영원히 흐르는 핏줄 같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 것의 소중함을 크게 느끼고 깨달은 바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7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술선수범하며 우리소리 전승에 앞장서고 있다.

유 선생은 우리 소리가 양악에 밀려 소외되고 관이나 정부에서도 지원책이 미흡한것 같아 늘 아쉬움이 많다고 한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우리소리의 맥을 이어받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계, 정부, 지자체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선생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지키고 우리 것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고집스럽게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조상의 숨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보면 계속 이어오던 맥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유 선생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정가에 미쳐 오늘도 그는 우리소리에 푹 빠져 있다. 가곡을 느끼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회원들을 위해 유 선생은 서너 평 남짓한 시우회관으로 매일 출근한다. 비록 일제시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지만 그곳에 가면 행복하다고 한다. 그가 더 신명나는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문

화

원

소

직

■ 서산문화유적기행 책자발간



서산의 문화재와 문화자료를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찾아볼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 발 행 일 : 12월 중
- 발행부수 : 500부



■ 청소년 박첨지놀이 공연

새롭게 각색한 서산박첨지놀이(도지정 무형문화재 26호)를 음암중학교 학생들이 지역학교와 소외지역을 찾아가 공연을 펼칩니다.

- 공연일시 : 12월 20일 ~ 23일
- 공연장소
운산초등학교 (12월 20일 10:00)
서 정 유 치 원 (12월 21일 10:00)
강당초등학교 (12월 22일 10:00)
오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2월 23일 10:00)
- 대 상 : 초등학생, 유치원생
- 인 원 : 400명



시 | 정 | 소 | 식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안내

☒ 대 상 : 관내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지원 : 임신초기부터 16주까지
- 기 본 검 사 : 임신초기 10주 이내 (풍진검사포함, 혈액 및 소변검사)
- 태아기형아검사(퀴드 테스트) : 임신15주 ~ 20주 사이
- 철분제지원 : 임신 20주 ~ 산후 2개월까지
- 지 참 물 : 산모수첩, 신분증
- 기타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생아청각검사, 영양플러스사업 등은
대상자 자격조건에 따라 지원
- 문 의 : 보건소 생활보건담당(660-2698)



※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의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 | | |
|--------------------------|-------------------------|--------------------------|
|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김시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장한석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 • 남현우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 서강만 (서산시 운산면) 20,000원 |
|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엄기택 (서산시 고북면) 10,000원 |
| • 김광호 (서산시 음암면) 30,000원 |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3,000원 | • 김낙중 (서산시 음암면) 30,000원 |
| • 최정식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유금희 (서산시 석남동) 20,000원 |
| • 조정웅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이용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 최수길 (서산시 석남동) 50,000원 |
| • 류근성 (서산시 석남동) 50,000원 |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5,000원 |
| • 이남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 김미숙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 유청배 (서산시 석림동) 100,000원 |
|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김낙형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김덕환 (서산시 성연면) 20,000원 |
|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서두석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심홍식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이인교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장현미 (서산시 고북면) 20,000원 |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 | |
|----------------------------|--------------------------|
| • 최종만 (서울시 양천구) 50,000원 | • 김화자 (서산시 동문동) 200,000원 |
| • 이용조 (충북 청주시 흥덕구) 30,000원 | • 박만진 (서산시 동문동) 240,000원 |
| • 이정례 (서산시 동문동) 50,000원 | • 선다희 100,000원 |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